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에 나타난 사별 애도 과정과 의미*

- 영화 <윈더랜드>(2024) 속 모녀 관계와의 비교를 곁하여

김지혜**

<차례>

1. 서론
2.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가 던지는 화두: 유예된 애도의 대물림
3. 굿 연행과 AI 기술을 통한 우울적 위치의 통과 시도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멜라니 클라인의 망상분열적 위치와 우울적 위치 개념을 바탕으로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에 나타난 사별 애도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는 어린 시절 친모의 죽음을 겪은 딸이 상실을 심리적으로 통합하지 못한 채 어머니가 되어 다시 상실을 맞이하면서 애도가 유예되고 대물림되는 심리 구조를 드러낸다. 이승과 저승이 단절로 끝맺는 결말은 산 자가 망자를 떠나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하지만 망자를 내면의 지지 자원으로 통합하는 단계까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한편, 유사한 상실 경험을 다룬 영화 <윈더랜드>는 AI 기술을 통한 망자와의 재회가 남겨진 자를 환상 속에 머무르게 할 위험성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일정한 전환점을 마련한다. AI 바이리의 존재는 딸 바이지아로 하여금 처음에는 상실을 회피하게 하지만 물리적 접촉의 불가능성과 엄마의 죽음 고백 수용을 통해 망상분열적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고전연구학회 130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며, 당시 토론을 맡아주신 이소운 선생님과 심사를 통해서 논의를 보완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국대학교 서사외문학치료연구소 연구원

위치를 통과하도록 이끈다. AI를 통한 재현은 우울적 위치로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환상과 그 깨짐이 교차하는 모순적 계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두 작품은 죽은 자의 현존이 애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며, 부재를 상징적으로 통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를 공통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허웅애기본풀이>는 이승과 저승의 단절이라는 서사적 결말을 통해 환상적 재현이 아닌 단절의 수용이 애도 과정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굿이라는 의례적 맥락에서 이 서사가 다시 연행될 때, 미완의 애도 여정을 재소환하고 이승과 저승을 상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한다. 이는 오늘날 AI 기술 중심의 애도 방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 애도 과정, 망상분열적 위치, 우울적 위치, 영화 <원더랜드>

1. 서론

본 연구는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¹⁾가 보여주는 사별 애도 과정의 특징을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을 참고하여 분석하고, 이 서사가 상실을 경험한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 본풀이는 세 명의 심방이 서로 다른 시기에 구연한 7편의 각편이 전해지며, 서사무가는 물론 다양한 장르로 전승된 이야기 모두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어 망자와 산 자의 연결이 끊긴 내력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²⁾ 죽은 자와의 단절과

1) 자료마다 허웅애기를 허웅애기, 허웅아기 등으로 부르지만 본고는 ‘허웅애기’로 통일하며, 원문 인용은 아래 저서에서 하겠다.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614~623쪽.

2) 윤정귀에 따르면, 현재 전승되는 <허웅애기본풀이>는 모두 17편이며 이 중 7편이 오인숙, 고순안, 강을생 심방에 의해 전승되는 서사무가에 해당한다. 각편의 조사 경위와 각편별 특징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윤정귀, 「<허웅애기본풀이>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7~12쪽.

소통이라는 소재는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메타버스(metaverse) 공간을 구현해 망자와의 연결을 기술적으로 복원하려는 현대 사회의 욕망과도 연결된다.³⁾ 따라서 <허웅애기본풀이>는 상실 이후 남겨진 자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허웅애기본풀이>의 여러 각편 가운데 강을생본에 주목한다. 강을생본은 설화 <콩쥐팥쥐>와 유사한 서사 구조⁴⁾와 신화적 소재⁵⁾를 공유하여 두 서사의 친연성이 주목되어 왔으며, 다른 심방본과 달리 다소 돌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도 사실이다.⁶⁾ 특히 <콩쥐팥쥐>와 결합된 강을생본은 어머니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며 애도 과정에서 요구되는 심리적 과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예된 애도의 대물림이라는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실과 애도의 심리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서사적 사례로 강을생본에 주목하고자 한다.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에서 허웅애기라는 이름은 초기에 ‘콩쥐의 계모’에게 붙여졌다가 <콩쥐팥쥐> 설화의 결말처럼 계모가 사라진 후 청의도령과 혼인하여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된 ‘콩쥐’에게로 계승된다.⁷⁾ 허웅애

3) 메타버스의 공간구성과 고전서사의 연관성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황혜진, 「메타버스의 시각에서 본 『금오신화』의 공간 구성」, 『작문연구』 53, 한국작문학회, 2022, 83~88쪽.

4) 김헌선, 「서사무가와 고소설의 서사구조 비교 -<허웅애기본풀이>와 <콩쥐팥쥐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교육논총』 4,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33~40쪽.

5) 예를 들어, 재생 화소의 등장을 비롯해 허웅애기가 열라대왕과 약속한 시간 내에 저승으로 못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신발을 찾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콩쥐팥쥐>에서 콩쥐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는 것과 연결된다. 그리고 설화 <허웅애기>를 구현한 부의함은 구현 당시 총 9편의 이야기를 제보했는데, 그중 두 가지가 <허웅애기>와 <콩떡이 풋떡이> 모두 설화이기 때문에 두 이야기 사이의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고은영, 『이승과 저승의 경계 넘어서기』, 민속원, 2021, 95~96쪽.

6) <허웅애기본풀이>는 오인숙본, 고순안본, 강을생본이 있으며 오인숙본이 <허웅애기본풀이>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며 고순안본은 서사가 축소, 강을생본은 서사가 확장되었다. 고은영(2021), 위의 책, 57쪽.

기라는 명칭이 계모에서 콩쥐로 전이되지만 콩쥐의 서사를 중심으로 보면 그 이름의 계승은 사별 후 인물의 심리 변화와 역할의 전환에 따라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허웅애기본풀이>는 <콩쥐팥쥐> 설화가 콩쥐의 재생과 계모에 대한 정치로 끝나는 서사를 넘어서 딸에서 어머니가 된 콩쥐, 곧 허웅애기의 이후 삶을 상상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를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한 인물이 성장해 어머니가 되었을 때 직면하는 심리적 과업을 그린 서사로 읽을 가능성을 제공한다.

본고는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의 사별 애도 과정의 특징을 대상관계 이론가인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의 ‘망상분열적 위치(Paranoid-Schizoid Position)’와 ‘우울적 위치(Depressive Position)’ 개념⁸⁾을 참고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멜라니 클라인의 애도 이론은 영아기(0~1년)의 심리 발달과 초기 대상관계(일반적으로 어머니)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지만 상실 경험은 영아기와 유사하게 망상분열적 위치와 우울적 위치를 반복적으로 오가게 한다는 점에서 성인의 사별 애도 과정에도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⁹⁾ 성인 또한 상실 대상에 대한 분노, 죄책감, 이상화 등의

7)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에서는 ‘콩대기’, ‘팥대기’로 표현되지만 일반적으로 불리는 ‘콩쥐’, ‘팥쥐’로, 할머니는 ‘할망’으로 표기하겠다.

8) ‘망상분열적 위치’와 ‘우울적 위치’에서 ‘position’은 ‘자리’로도 번역되나 ‘위치’로 통일하고,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등의 표현도 문맥을 살펴 가며 ‘영아기’로 하겠다. 번역과 개념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한나 시겔, 이재훈 옮김,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카탈리나 브론스타인 외 10인, 홍준기 옮김, 『현대적 관점의 클라인 정신분석』, 눈출판그룹, 2019; 홍희정,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에서 본 애도과정 사례연구』, 협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93~101쪽.

9) 멜라니 클라인의 두 위치 개념은 고정된 발달 단계가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상실 경험과 연관되어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비정상적인 애도와 조울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애도에서도 영아기의 우울적 위치가 재활성화된다. (...) 조울증 환자와 애도과정에 실패한 사람들은, 비록 각자의 방어들은 크게 다를지라도, 그들이 초기 영아기에 좋은 내적 대상들을 확립하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이를 어떻게 통합하고 내면화하느냐에 따라 애도의 깊이와 양상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은 영아기뿐만 아니라 상실을 겪은 이가 경험하는 분열된 감정과 이를 통합하는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서사무가 의례(儀禮)에 내재된 애도와 치유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정신분석학적 접근이나 분석심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접근해왔다.¹⁰⁾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예로 들자면, 진도 씨김굿을 망자의 해원(解冤)을 위한 의례일 뿐만 아니라 남겨진 자의 심리적 애도 과정이 상징적으로 구현되는 무대로 보고, ‘고(苦)풀이-씻김-넋올리기-길뉘음’으로 이어지는 굿의 제차를 상실 이후 무의식적 감정을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정리하는 심리 과정과 대응시켰다.¹¹⁾ 그러나 기존 분석은 서사무가의 내용과 의례 구성이 지닌 심리적 의미에 주목하면서도 상실 대상에 대한 원망, 죄책감, 애착이 복합적으로 얽힌 양가감정의 처리 과정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본고는 이 지점에 주목하여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을 통해 서사무가 서사 자체에 내재된 애도 감정의 복잡성을 보다 정교하게 조명하고자 한다.¹²⁾

자신의 내적 세계를 안전한 것으로 느낄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들은 영아기에 우울적 위치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애도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로 인해 재생된 초기 우울적 위치가 어린시절에 자아가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을 통하여 다시금 수정되고 극복된다. 그 개인은 실제로 상실한 사랑하는 대상을 내적 세계 안에 다시 회복시킨다.” 한나 시겔(1999), 앞의 책, 92~93쪽.

10) 김희선, 「제주 「시왕맛이」에 담긴 죽음과 치유 -굿의 의례와 본풀이, 심층심리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48, 한국무속학회, 2024; 정순애, 「진도 씨김굿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1) 정순애(2020), 위의 논문.

12) 강지영은 서사무가 함흥본 <바리데기>에서 바리데기와 언니들이 어머니와 맺는 관계를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현실에서의 물리적 죽음과 상실 경험이 남기는 심리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발달 과정 속 애도 심리를 통해 주제성 형성을

분석 대상인 <허웅애기본풀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승과 저승 간의 왕래와 소통이 단절되면서 삶과 죽음이 분리되는 과정을 창세 신화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¹³⁾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던 시기에 그 분리가 이뤄짐으로써 세상의 질서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대개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¹⁴⁾ 이승에 남겨진 자에게는 이러한 삶과 죽음의 분리를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가 <콩쥐팥쥐> 서사와 결합된 점을 충분히 주목하지 않거나 오히려 해당 특징을 서사의 개연성을 해치는 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¹⁶⁾

최근 이소윤은 강을생 심방이 <허웅애기본풀이>와 <콩쥐팥쥐>를 결합한 의도를 모성의 양극단을 예시하려는 데서 찾고, 이승에서의 모성 수행을 둘러싼 며느리 허웅애기와 시어머니 할망 간의 갈등에 주목하였다. 이는 저승과 이승을 오가던 허웅애기를 결국 이승에서 쫓아내는 할망의 행위를 통해 가부장제 사회에서 모성이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함을 암시한다고 보았다.¹⁷⁾ 허웅애기의 모성에 주목한 연구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소

분석한 기존 연구와는 접근 지점이 다소 다르다. 강지영, 『함흥본 <바리데기>에 나타나는 딸들의 자리 잡기』, 『우리어문연구』 80, 우리어문학회, 2024, 385~412쪽.

- 13)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 한겨레출판사, 2014, 207~214쪽; 김현선·류창선, 「제주도 <허웅애기본풀이>의 의미와 의의」, 『실천민속학연구』 24, 실천민속학회, 2014; 윤정귀(2014), 앞의 논문; 권태효, 『최초의 죽음』, 지식의날개, 2022, 192~200쪽.
- 14) 신동훈은 질서 체계의 확립이 역사·문화적 발전으로 긍정돼야 할 요소인 듯 하지만 <허웅애기본풀이>에서 보이는 시선은 부정적인 쪽에 가깝다고 평가하였다. 신동훈(2014), 위의 책, 214쪽.
- 15) 유형동, 「<허웅애기본풀이>의 구조와 의미」, 『어문론집』 68, 중앙어문학회, 2016; 고은영(2021), 앞의 책.
- 16) 김현선·류창선(2014), 위의 논문, 135쪽.
- 17) 이소윤, 「<허웅애기본풀이>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60, 한국고전연구학회, 2023.

윤의 논의는 허웅애기의 모성을 단일하지 않은 양가적 성격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¹⁸⁾ 특히 후반부의 콩쥐가 전반부에서 계모에게 붙여졌던 이름인 허웅애기를 이어받음으로써 서사 전반에 걸쳐 서로 대비되는 두 형태의 모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허웅애기본풀이>를 창세 신화의 질서 확립 서사로 보거나 모성의 사회적 위치를 조명하는 데 집중해왔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성과 애도의 접점을 ‘어머니의 상실 경험과 유예된 애도의 대물림’에서 찾고,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에 내재된 상실과 관련된 복합적인 감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콩쥐팥쥐>와의 연결을 통해 확장된 <허웅애기본풀이>가 보여주는 애도의 유예 상황과 애도가 유예된 채 딸에서 어머니가 되었을 때 드러나는 모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서사가 제시하는 애도 과정의 의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허웅애기본풀이>의 유사한 구조를 지닌 영화 <윈터랜드>(2024)와 비교하면서 상실을 애도하는 서사로서 <허웅애기본풀이>가 지니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2.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가 던지는 화두: 유예된 애도의 대물림

1) 망상분열적 위치: 분열된 모성 이미지와 콩쥐의 심리적 투사
본고는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 전반부에 결합된 <콩쥐팥쥐> 서

18) 서영숙,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의 특징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91~120쪽; 서영숙, 「한·영 발라드에 나타난 ‘여성의 죽음’에 대한 인식비교」, 『고시가연구』 31, 한국고시가문학학회, 2013, 219~246쪽. 고은영 역시 허웅애기 모성의 양면성을 언급하였다. 고은영(2021), 앞의 책, 63쪽.

사가 친모를 상실한 콩쥐의 애도 심리를 망상분열적 위치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고, 이 서사의 구조와 상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콩쥐의 시점에서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을 살펴보면 ‘나쁜 계모 허웅애기-딸 콩쥐’의 관계가 ‘좋은 친모 콩쥐 허웅애기-세 자녀’의 관계로 전환된다. 이 과정은 어머니의 상실을 경험한 딸이 어머니의 위치로 이행하는 심리를 계모 허웅애기와 친모 허웅애기의 대비를 통해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허웅애기가 콩쥐의 계모로 등장하는 것은 친모와 사별한 콩쥐의 심리 상태와 관련지을 수 있다. 어린 콩쥐에게 어머니의 부재는 단순한 결핍을 넘어 감정적으로 버림받았다는 감각을 동반하며 깊은 상실감을 안겼다. 특히 콩쥐는 자신에게만 부당한 고통이 주어지는지, 왜 하필 자신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남겨두고 떠난 고인에 대한 원망을 품었을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망자를 향한 원망과 분노가 부도덕하거나 비정상적인 감정으로 간주돼 애도 주체가 그 감정을 죄책감과 함께 내면에 억누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내면에 남아 불안을 증폭시키고 콩쥐는 이러한 불안을 견디기 위해 대상을 분열적으로 인식하는 망상분열적 위치로 퇴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멜라니 클라인에 따르면, 영아는 생애 초기에 주요 대상으로부터 욕구 충족이 좌절될 때 그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분리하여 인식한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은 좋은 대상일 수 없다고 여겨 나쁜 대상으로 분열해 인식하고, 반대로 좋은 대상은 이상화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것이다.¹⁹⁾

이러한 방어기제는 단지 영아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달

19) “내적 박해자들에 대한 주된 방어기제들에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나누는 분열, 이상화, 거칠게 밖으로 내보내는 축출, 그리고 박해자들과 증오스런 자기의 부분들을 멸절시키는 것 등이 있다.” 한나 시겔(1999), 앞의 책, 90쪽.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상실 경험 속에서도 반복된다. 콩쥐의 사례처럼 상실을 겪은 이는 상실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분열하여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 사별한 유족들 역시 고인에 대한 기억을 행복했던 경험과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양분해 받아들이며 이러한 분열적 사고는 고인에 대한 원망과 그로 인한 박해 불안을 완화하려는 심리적 방어로 작용한다.²⁰⁾ 남겨진 자는 고인에게 품은 사랑과 증오를 내적으로 통합하지 못한 채, 증오의 감정을 외부 대상에 투사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²¹⁾

멜라니 클라인의 관점에서 볼 때, 콩쥐의 친모가 죽은 뒤 자신을 은근히 차별하고 학대하는 계모가 등장하는 장면은 콩쥐의 내면 심리가 서사적으로 재현, 변형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친모의 부재와 더불어 시작되는 계모의 학대는 콩쥐가 마주한 외부 현실의 가혹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상실을 겪은 콩쥐의 내적 환상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계모는 겉보기에는 콩쥐뿐만 아니라 팔쥐에게도 과업을 부여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팔쥐를 편애한다. 이는 콩쥐가 경험하는 애착 대상의 부재와 정서적 소외라는 내면 감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정리하면, 친모의 죽음과 계모의 등장은 내적으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분열하고, 상실 후 부정적 감정을 외부의 타자에게 투사하여 자신의 심리를 방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²⁾

20) “모든 애도 과정에는, 홀로 남겨지고 상실과 타협하여 어쩔 수 없이 삶을 새롭게 꾸려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내재 되어있기에, 그 밖에도 죽은 자와의 관계 또한 정리되어야 하기에, 당연히 공격적 흥분이 드러나야만 한다. 다른 한편 죽은 자를 나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에 따라 우리는 공격성을 억압해야만 한다.” 베레나 카스트, 채기화 옮김, 『애도』, 궁리출판, 2015, 103쪽.

21)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편집적으로 의사나 간호사들을 비난할 수 있다.” 한나 시겔(1999), 앞의 책, 91쪽; 유석, 「자살생존자의 유예된 애도경험에 관한 자문화 기술자: 문학치료집단 경험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 18쪽.

22) “옛이야기에서 신이나 악마가 등장해서 주인공으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가혹한 운명

대상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분열해 나쁜 면을 외부로 투사하는 것은 내면의 불안을 외부로 밀어내는 방어기제이며 계모와 팔쥐는 콩쥐의 부정적 감정과 불안이 투사된 존재이다. 그런데 콩쥐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외부로 온전히 방출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성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야기 속 콩쥐는 계모의 차별과 팔쥐의 부당한 요구²³⁾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다가 팔쥐의 핏물에 속아 결국 연못에 빠져 죽는다. 이 장면은 콩쥐의 내면에 축적된 부정적 감정이 외부로 향한 저항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성으로 전환되어 파국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⁴⁾

그러나 억울하게 죽은 콩쥐는 청나비로 환생해 팔쥐의 앞머리를 계속 뽑거나 불 속에 던져질 때 구슬로 변하는 등²⁵⁾ 자신이 겪은 부당함과 계모 및 팔쥐에 대한 미움,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한다.²⁶⁾ 특히 콩쥐는 팔쥐의 죽음을 기도하며 그동안 내면에 억압된 감정을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심리

을 맞이하게 하고 험한 세상으로 주인공을 내몰아 먼 길을 떠나게 했지도 모르겠다. (...) 이러한 감정 역시 연구자 내면 감정이 외부로 투사된 것이다.” 유석(2025), 위의 논문, 4쪽 각주 6번.

- 23) 팔쥐가 콩쥐에게 자신이 소를 데리고 가 먹이겠다고 하자 콩쥐는 선뜻 “어서 걸랑 기영 흐라.(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 615쪽)”고 한다.
- 24) 박시연, 「가족관계의 갈등과 단절에 기인한 여성의 물화(物化) 양상과 꽃 화소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 연구」, 『문학치료연구』 67, 한국문학치료학회, 2023, 212~213쪽.
- 25) 신동훈은 콩쥐가 구슬이 되는 것을 트라우마의 징후로 보았다. 신동훈, 「품안의 자식과 내용은 자식의 엇갈린 운명」, 민족문학연구소 엮음, 『한국 고전문학 작품론 6』, 휴머니스트, 2018, 142~143쪽.
- 26) 꽃대길 나가쟁 흐민 내비가 앞살작을 박하게 매여. 들어오쟁 흐민 또시 뒷살작을 박하게 매연 “이 내비 저 내비여 괴씸흔 내비여. 불레레라 지더불져.” (...) 어디, 아무 두 사람이 웃인 땀 구슬이 나오랑 “저년의 꽃대길 죽여줍생.” 흐여가난, 호로는 가장 네라 어디 갔단 오란 보난 “하늘님께 저 꽃대길 죽여줍셴” 흐단, 사람이 봐지난 궤소 곱데레 화려스기 기여들인. 궤쪽을 울안 보난 아무것도 웃인 (...) 궤소곶으로 처녀가 나오고 “저 꽃대길 죽여줍서 하늘님아, 하늘님아.” 흐명 손 미주 부비염시난.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 620쪽.

적 해방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의도령은 이들의 부당한 행동을 응징하면서 콩쥐의 복수를 실현한다.

콩쥐는 자신을 홀로 두고 떠난 친모, 가혹한 세계의 한 요소인 팔쥐와 계모 허웅애기에 대한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억울한 죽음에 이르렀지만 이를 전환시켜 상대를 향한 미움, 분노 등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허웅애기본풀이> 서사 앞부분에 결합된 <콩쥐팍쥐> 이야기는 어머니를 상실한 딸이 의식화하지 못한 부정적 감정 표현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야기의 향유를 통해 안전한 방식으로 원망과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²⁷⁾

그러나 멜라니 클라인의 관점에서 볼 때, 콩쥐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통합하지 못한 채 분열된 인식을 지속하며 망상분열적 위치에 머물러 우울적 위치로의 통과가 정체된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콩쥐팍쥐> 이야기에서 계모의 학대로부터 콩쥐를 도와주는 소, 새, 까마귀는 좋은 대상이자 심리적 지지 자원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콩쥐에게 이러한 좋은 대상의 돌봄은 일시적이며 이를 내면화하여 고통스러운 시기에 언제든지 소환해 심리적 지지 자원으로 삼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는 계모와 팔쥐를 일방적으로 나쁜 대상으로 고정하고 처벌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 속에 얽힌 복잡한 감정을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어머니를 잃은 딸인 콩쥐는 우울적 위치에 들어서는 문 앞에서 서 있었지만 그 문을 완전히 통과하지는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27) 애도 과정에서 이야기 속 인물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표출하는 것이 지닌 의미는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실에는 마음껏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어도 복수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야기 속 인물을 원망할 수 있다. 이야기 속에서 안전하게 모두를 미워할 수 있었다. 이야기라는 환경 속에서 공격하고 내가 미워했던 대상들이 현실에서 살아남았고, 안전하게 되돌려지는 경험을 했다.” 유석(2025), 앞의 논문, 107쪽.

2) 우울적 위치의 통과 실패: 감정 통합의 좌절과 유예된 애도

멜라니 클라인에 따르면 애도 과정에서 주체는 초기의 망상분열적 위치를 거쳐 점차 우울적 위치로 이행한다. 영아는 망상분열적 위치에서 우울적 위치에 이르면, 외부 대상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과 좌절시키는 대상, 현존하는 대상과 부재하는 대상으로 분열된 것이 아닌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지닌 동일한 전체 대상임을 인지하게 된다.²⁸⁾ 사랑했던 대상에 대한 증오와 원망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여전히 소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정서적 통합을 경험하는 것이다.²⁹⁾ 특히, 어머니와 같은 주요 애착 대상에 대해 이러한 통합이 가능해질 때, 주체는 이를 전체적인 내적 대상으로 내면화할 수 있다.³⁰⁾ 여기서 애도는 죽음을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실의 고통을 충분히 감내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원망과 분노, 좌절의 감정은 연민과 슬픔, 나아가 상실에 대한 책임의 감정으로 전환되며 죽음의 불가역성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이론적 틀에서 볼 때,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에서 드러나는 콩쥐의 심리는 우울적 위치로의 이행이 좌절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28) “이 새로운 자리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상이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사랑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대상에 대한 상실감 또한 하나의 전체로서 느껴질 수 있다.” 한나 시겔(1999), 앞의 책, 88쪽.

29) “어머니는 아이의 만족감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좌절과 고통의 원천으로도 느껴지는 것이다.” 한나 시겔(1999), 위의 책, 87쪽.

30) “우울적 위치의 발달에 있어서 영아의 중심적 과제는 충분히 좋고 안정적이며, 전체적인 내적 대상을 자아의 핵심에 확립하는 일이다. (...) 좋은 대상에 대한 죄책감을 수반하는 우울적 고통은 회복의 소원들과 좋은 내적 대상을 회복시키는 환상들을 외적 및 내적으로 활성화시킨다.” 한나 시겔(1999), 위의 책, 89~90쪽; 유석(2025), 앞의 논문, 18쪽. 우울적 위치에서 ‘좋은 대상’이란, ‘나쁜 대상’의 대척점에 있는 존재로서 이상화된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미움, 만족과 실망의 감정을 통합하여 받아들인 전체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대상이 자아의 핵심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 자아는 상실과 갈등을 견디며 애도를 수행하고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콩쥐는 억울한 죽음 이후 환생하여 계모와 팔쥐를 향한 분노와 원망을 표출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들의 처벌이 끝난 뒤에도 친모의 상실에 대한 애도는 이뤄지지 않는다. 콩쥐는 죽은 어머니에 대한 회고나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며 결국 좋은 친모와 나쁜 계모를 하나의 애착 대상으로 통합하지 못한 채 이분화된 감정 구조에 머무른다. 그 결과 상실의 감정을 충분히 소화하거나 통합하지 못하고, 고통을 외부로 분산하는 방식에 머무르면서 우울적 위치로의 이행은 유예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정체가 콩쥐가 어머니가 된 이후에도 반복된다.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에서는 정의도령이 팔쥐를 징치하여 죽이고, 계모 허웅애기는 서사에서 퇴장한 뒤 환생한 콩쥐가 허웅애기로 불리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콩쥐 허웅애기는 세 자녀를 낳고 기르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는다. 그런데 서사에서는 이승에 남겨진 자녀들의 상실 반응은 생략된 채 저승의 허웅애기가 자녀들을 그리워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리는 모습이 자세하게 서술된다.³¹⁾ 어머니의 죽음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콩쥐 허웅애기가 결국 자신 또한 어머니처럼 자녀를 떠나게 되었다는 인식 속에서 미안함과 슬픔이 증폭되어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염라대왕은 허웅애기가 낮에는 저승, 밤에는 이승을 오갈 수 있도록 허락한다.

애도 과정에서 미해결된 심리 문제는 삶의 특정 시점, 특히 주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되살아나 원가족에서 풀지 못한 감정이 대물림될 수 있다. 콩쥐 허웅애기가 자식을 낳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신이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돌봄과 애정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지고, 그 결핍이 모성 수행에 영향

31) 저승을 가난, 밥 먹쟁 현여도 울어지곡, 하간, 애기 생각하는 게 수심 근심으로 울어가난, (...) “갓도 말곡 이르도 맑서. 어린 애기도 혼술 난 애기, 두술 난 애기, 세술 난 애기에, 부모 초상 백발노장도 모사 있고, 아기덜, 하간 생각을 하는 게 수심이 되곡, 근심이 됩네다.”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 621쪽.

을 미치는 것이다. 허웅애기는 과거 어머니의 부재를 보상하고자 자녀를 과잉보호하거나 모방할 대상이 부재한 상태에서 감정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반응할 수 있다. 여기서 허웅애기는 자녀에게 좋은 어머니로 남고자 하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적인 이별을 수용하지 못한 채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자녀 곁에 머물며 과잉보호하는 것이다.

허웅애기의 반복적 귀환과 자녀 돌봄을 헌신적인 모성애로 볼 수도 있지만³²⁾ 동시에 자녀에게 나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한 강박적 행동이자 자신의 결핍된 애도 경험을 자녀에게 투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허웅애기의 이러한 태도는 남겨진 자녀들의 애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일시적인 재회를 통해 이별을 연습하고, 상실의 감정을 단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애도의 한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허웅애기가 지속적으로 이승에 체류하는 것은 자녀들이 상실의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죽음을 심리적으로 인식할 기회를 차단한다.³³⁾

멜라니 클라인에 따르면 자녀들은 상실의 충격을 경험하고 분노와 슬픔을 표출하는 망상분열적 위치를 거쳐 상실한 대상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우울적 위치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허웅애기의 지속적인 현존은 자녀가 상실의 불가역성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며 감정의 통합을 지연시킨다. 망자의 반복적 귀환은 자녀들이 상실 대상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32) 윤정귀는 허웅애기의 모성애가 이승과 저승을 왕래할 수 있는 계기였으나 그 모성애로 인해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었다고 하면서 모성애의 양면성을 지적하였다. 윤정귀(2014), 앞의 논문, 37쪽.

33) 어명 웃인 애기 님지 아녀연, 애기들이 잘 낀. “무사 우리 어멍 웃손? 우리 어멈 싶수다.”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 621쪽. 고은영 또한 어린 자녀가 어머니의 죽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죽음의 대상이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라면 자녀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기에 죽음으로 가는 저승길을 치기 이전에 <허웅애기본풀이>를 통해 어머니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존재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간 것이라는 사실을 유족에게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고은영(2021), 앞의 책, 120쪽.

함으로써 애도를 수행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허웅애기의 모성은 단순한 헌신을 넘어 미해결된 애도 감정이 다음 세대로 이월(移越)되는 심리 구조를 드러낸다.

어머이 들어오니 “어머님아, 난 오줌 마렵수다.” “저 요강이 강 누어불라.”
 “내가 나곡 안내서는 놀 수가 읍습네다.” “어머님아, 똥이 마렵수다.” “흐건 통
 시에 강 누어불라.”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 622쪽.

허웅애기가 자신의 이승 방문이 탄로 날까 봐 오줌이 마렵다는 자녀에게 방 안 요강에 소변을 보도록 강요하는 위 장면은 자녀의 안전과 비밀 유지를 위한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자녀의 생리적 욕구까지 통제하려는 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³⁴⁾ 이는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차단하고 상실 이후의 심리 발달에 필수적인 분리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속 호랑이 어머니가 남매에게 대소변을 윗목에 누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보이는 모성의 억압적인 측면과 상응한다. 결국 허웅애기의 반복적 귀환은 자녀의 애도 과정을 지연시키고 심리적 퇴행을 유발할 뿐 아니라 과도한 모성이 애도 실패와 결합될 때 돌봄이 통제와 억압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허웅애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는 밖으로 나와 할망에게 어머니가 이승에서 왔음을 알리고 할망은 허웅애기에게 저승으로 가지 말라고 하며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어떻게 영 아기가집네까?”라고 묻는 허웅애기의 질문을 통해 허웅애기의 내면에는 이승에 남고자 하는

34) 윤추월 구연 설화 <허웅애기>와 이방아 구연 설화 <허웅애기>에서는 밤마다 자녀들을 만나러 온 허웅애기가 사람들이 볼까 봐 문을 잠그고 소변도 방에서 누라고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윤정귀는 ‘죽은 엄마의 힘이 살아있는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한다고 꼬집었다. 윤정귀(2014), 앞의 논문, 40쪽, 52쪽; 유형동(2016), 앞의 논문, 140쪽.

욕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⁵⁾ 각편에 따라서는 할망의 등장 대신 허웅애기가 이승에 와 아이들을 돌보다가 저승에 갈 시간을 잊거나 저승으로 가지 않기 위해 구들 속에 숨기도 한다. 또한,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승에 머무르려는 허웅애기를 붙잡는 할망과, 염라대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승으로 가려는 허웅애기 사이의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 변이들 속에서 허웅애기는 이승에 머무르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할망은 허웅애기를 돕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세계 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³⁶⁾ 겉으로는 허웅애기 편에 서서 죽음을 피하는 길을 제시하지만 차사가 왔을 때는 허웅애기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방법을 일러 주어 결과적으로 차사가 죽음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진성기는 할망이 차사에게 허웅애기를 데려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를 남겨진 자의 평안을 위한 질서 확립으로 해석하였다.³⁷⁾ 이처럼 허웅애기가 저승으로 완전히 떠나는 일은 이승에 남은 자들이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세계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죽음을 질서를 갖춘 사건으로 의미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는 어머니의 상

35) 할망이 나완. “아이구! 설론 애기 느 오랏구나! 다시 가지 말라 다시 가지 말라.” “아이강 됩네까? 아맹해도 가사 홉네다.”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어떻호영 아이가 집네까?”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 622쪽.

36) 각편에 따라 이웃할망, 청태산 마구할마님(오인숙 심방본, 2013.11.) 등으로 등장하지만 허웅애기가 염라대왕의 금기를 어기고 저승에 가는 것을 막아 이승과 저승이 단절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서사 내적 역할은 동일하다. 정제호는 이러한 할망을 ‘선의의 악인’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모순성은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그리는 텍스트 내부의 서사 논리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텍스트 외부의 국판 장면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정제호, 「<허웅애기본풀이>에 나타난 ‘선의의 악인’과 저승관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44, 한국구비문학학회, 2017.

37) 진성기는 할망이 차사에게 허웅애기를 데려가는 법을 말한 이유를 어린아이의 평안과 연결한다. “결국 <허웅애기본풀이>를 푸는 심방들은 한결같이 허웅애기가 칭원한 귀신(역울한 귀신-서운한 귀신)이라 하고, 또 어린애를 낳아서 기르는 데 있어 평안하게 해주는 신(神)이라는 데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고 있다.” 진성기, 『탐라의 신화』, 제주도 민속학연구소, 1980(고은영(2021), 앞의 책, 65쪽 재인용).

실을 경험한 딸이 다시 어머니가 되어 죽음을 맞는 반복 구조를 통해 해결 되지 못한 애도의 감정이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궁궐 허웅애기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망상분열적 위치에서 우울적 위치로 이행 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렀고, 미완의 애도 상태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녀들 역시 애도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즉, 죽은 허웅애기의 반복적 귀환은 자녀들에게 상실을 직면하게 하기보다는 상실을 지연시키고, 환상 속에 머물게 함으로써 멜라니 클라인 이론에서 우울적 위치로의 이행에 필수적인 감정 통합 작업을 방해하는 것이다.

<허웅애기본풀이> 서사는 결말에서 이승과 저승 사이의 단절을 통해 남겨진 자들이 환상을 끊고 상실을 심리적으로 상징화하는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망자의 물리적 부재를 인정하고 내면에서 상징적, 심리적 전환을 하는 것이 애도 여정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울적 위치로의 완전한 이행과 감정의 통합을 보여주지 못한다. 남겨진 자들이 상실 대상에 대한 양가감정을 통합하거나 내면화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은 채 서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3. 굿 연행과 AI 기술을 통한 우울적 위치의 통과 시도

2장에서는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에서 애도 과정이 유예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죽은 궁궐 허웅애기가 자녀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중심화되면서 이승에 남겨진 자녀가 상실 현실을 직면하고 감정을 통합하는 애도의 심리적 과업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결말부에서 허웅애기의 금기 위반을 계기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단절되었다고만 나오고 허웅애기가 어떤 신직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승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사는 생략되었다.

이승과 저승의 단절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소통이 끊기는 일은 이승에 남겨진 이들이 망자를 저승으로 떠나보내는 애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해야 하는 결과이다. 이를 멜라니 클라인의 애도 이론에서 보자면, 남겨진 자는 망자를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전체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죄책감을 견디며 상실된 대상을 상징화하고 내면화함으로써 그 부재를 심리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허용애기본풀이>에서는 저승 차사가 허용애기의 혼을 데려간 뒤 이승과 저승이 완전히 단절되고, 산 자는 고인과의 의미 있는 작별을 수행하지 못한 채 상실의 현실에 머물게 된다. 이로 인해 서사 속 이승에 남겨진 자녀들은 우울적 위치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허용애기본풀이>가 굿판에서 연행될 경우 유예된 애도 여정이 재소환되며 우울적 위치를 통과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즉, 본풀이가 굿이라는 의례를 통해 연행될 경우 미완의 애도 여정이 다시 수행되는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정제호는 텍스트 내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이야기하지만 텍스트 밖 의례를 통해서 이승과 저승은 소통이 가능하기에 텍스트 안팎이 서로 모순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³⁸⁾ 고은영도 실제 의례 현장에서 굿의 제차 등을 통해 볼 때, 단절된 이승과 저승은 다시 연결된다고 하였다.³⁹⁾ 굿이 연행되는 현장에서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던 허용애기의 역할을 심방이 대신 수행하며 망자들은 심방의 몸을 빌려 이승에 잠시 머물기도 한다. 이처럼 의례 현장은 본풀이 텍스트에서 단절된 것으로 그려진 이승과 저승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상실을 상징화하며 재통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⁴⁰⁾

38) 정제호(2017), 앞의 논문.

39) 고은영(2021), 앞의 책. 최근 연구는 현지조사를 통해 <허용애기본풀이>가 의례에서는 <차사본풀이> 다음에 연행되었다고 한다. 윤정귀(2014), 앞의 논문.

40) 멜라니 클라인의 우울적 위치 개념을 통해 살펴본 굿 연행의 심리적 효용,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허웅애기본풀이>가 <차사본풀이> 뒤에 이어져서 연행된다고 하였지만⁴¹⁾ 실제 굿판에서 어떤 맥락에서 연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한 실상이다. 그렇기에 <허웅애기본풀이>의 현장 전송력은 크게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본풀이 텍스트에서 미완의 애도로 남은 서사가 연행을 통해 우울적 위치를 통과하고 애도의 심리적 과업을 수행할 기회는 현실적으로 제한된다. 즉, 상실을 상징화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화해를 매개하는 굿의 심리적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허웅애기본풀이>가 실제 연행을 통해 애도 여정을 실현하는 역할은 크게 위축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 사회는 상실과 애도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다양한 탐색을 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은 망자를 재현하고 그리움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굿이 상실을 상징화하고 단절된 이승과 저승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의례였다면 오늘날에는 AI 기술이 그 기능을 일부 대체하거나 확장하려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AI 기술을 통해 망자와 재회하려는 시도와 이러한 욕망을 반영한 서사는 멜라니 클라인이 말한 우울적 위치의 통과라는 애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옵니버스식 영화 <원더랜드>의 한 에피소드에는 허웅애기와 그 자녀, 그리고 할망의 삼각관계를 연상시키는 인물들이 등장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달리하는 모녀가 AI 기술 서비스인 ‘원더랜드’를 매개로 소통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화 <원더랜드>의 바이리(탕웨이)는 죽음을 앞두고 딸 바이지아(여가원)에게 상실의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아 원더랜드 서비스를 의뢰한다. 하지만 바이리의 어머니이자 바이지아의 할머니 화란(니나 파

AI 기술을 통한 망자와의 재회가 갖는 상관성과 차이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지면에서 논증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41) 윤정귀(2014), 앞의 논문; 유형동(2016), 앞의 논문; 정제호(2017), 앞의 논문.

우)은 이 서비스를 통해 복원된 AI 바이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갈등한다. 화란은 비록 그 이유와 맥락은 다르지만 <허웅애기본풀이>의 할망처럼 망자의 현존에 대해 불편함과 거부감을 표출하며 망자와의 물리적 단절을 원하는 것이다.

<원더랜드>의 바이리는 바이지아의 슬픔을 최소화하고자 자신의 죽음을 숨긴 채 AI를 통해 스스로를 복제한다. 바이리는 생전에 바쁜 생활로 인해 딸과 소원했던 관계를 AI 바이리를 통해 보상하고, 바이지아에게 이상적인 어머니로 남는 환상을 품은 것이다. 이는 자녀가 상실로 인해 겪을 충격을 줄이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나 멜라니 클라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가 상실의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망상분열적 위치에 머물도록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바이지아는 처음에는 AI 바이리를 살아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며 바이리의 상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바이지아는 영상통화를 통해 원더랜드 속 AI 바이리와 연결될 수는 있지만 허웅애기와 자녀들처럼 직접 접촉하며 온기를 나누지는 못하기 때문에 물리적 접촉의 부재가 반복되면서 바이지아는 점차 실망감을 드러내고, 나아가 바이리를 직접 만나러 가려는 시도마저 좌절되는 것이다. 그런데 (AI) 바이리와 물리적 접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바이지아가 이상화된 완벽한 어머니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망상분열적 위치를 통과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된다.

이후 AI 바이리가 직접 바이리의 죽음을 고백하자 바이지아는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인다. 이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직면한다는 점에서 변화된 인식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지만 곧바로 우울적 위치로의 이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에 따르면, 우울적 위치에서의 애도는 상실된 대상을 내면에서 통합하고, 상징화와 내면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이지아가 AI

바이리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은 이미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더 이상 이상적인 대상이 아닌 바이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이는 망자를 향한 단순한 집착이나 연결이 아니라 내적 통합을 지향하는 움직임으로서 우울적 위치로의 이행을 예고한다. 하지만 영화는 바이지아가 실제로 내적 대상을 회복했는지 여부는 명확히 보여주지 않으며 그 과정을 열린 결말로 남겨둔다. 이는 멜라니 클라인이 제시한 망상분열적 위치와 우울적 위치 간의 평생에 걸친 이동과 유동성의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다.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와 영화 <윈더랜드>는 모두 죽은 자의 반복적 현현(顯現)이라는 설정을 통해 산 자의 우울적 위치 통과가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허웅애기본풀이>에서 허웅애기의 반복적인 이승 출현은 자녀가 상실을 인식하는 것을 유예시켜 망상분열적 위치에 머물도록 하고, <윈더랜드>에서의 AI 바이리 역시 바이지아가 상실을 상징화하고 심리적으로 내면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이를 통해 망자를 실제 처럼 반복적으로 호출하거나 되살리려는 시도는 산 자가 망자의 물리적 부재를 인정하고 상징화하는 우울적 위치의 과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윈더랜드>에서 바이지아는 AI 바이리를 통해 상실을 점차 인식하고 내면적으로 관계를 재구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곧바로 우울적 위치의 통과로 이어지거나 완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과정은 종종 미완으로 남겨나 반복적으로 중단되며 애도 작업의 본질인 상실 대상의 통합과 상징화에 도달하기보다 회피와 재현의 차원에 머물 위험을 안고 있다.⁴²⁾ 반면 <허웅애기본풀이>의 연행

42) AI 바이리가 존재하는 한 바이지아가 어머니의 상실을 완전히 직면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영화가 삼대에 걸친 모녀의 관계 회복이라는 이상적 모습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방식은 멜라니 클라인의 우울적 위치가 요구하는 상실의 현실 수용과 내면

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굿은 여전히 우울적 위치의 통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굿판에서 <허웅애기본풀이>가 연행될 경우, 유예된 애도 여정이 다시 호출되고 심방을 매개로 이승과 저승이 상징적으로 재연결된다. 본풀이 텍스트 안에서 단절로 남아 있던 이승과 저승의 관계가 의례 현장에서 재구성되며, 이는 산 자가 망자의 부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상징화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심리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우울적 위치를 통과하는 애도의 가능성은 망자의 반복적 재현이 아니라 상실을 인정하고 의미화하려는 산 자의 상징적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멜라니 클라인의 망상분열적 위치와 우울적 위치 개념에 비추어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에 나타난 사별 애도 과정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강을생본 <허웅애기본풀이>는 어린 시절 친모의 죽음을 경험한 딸이 상실을 심리적으로 통합하지 못한 채 어머니가 되어 다시 상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애도가 유예되고 대물림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허웅애기본풀이>는 이승과 저승의 단절이라는 결말을 통해 산 자가 망자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하지만 망자를 내면화하여 지지자원으로 삼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한편, <허웅애기본풀이>와 유사한 관계 구조와 상실 문제를 다루는 영화 <원더랜드>는 AI 기술을 통한 망자와의 재회가 남겨진 자를 환상 속에서 머물게 할 위험을 드러내면서도 애도 과정에서 일정한 전환점을 마련해준다. AI 바이리의 존재는 바이디아가 처음에는 상실을 회피하게 만들지만

회라는 과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표유진, 「SF영화에 나타난 디지털 사후세계와 죽음의 윤리」, 『대중서사연구』 30(3), 대중서사학회, 2024, 486~487쪽.

물리적 접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 AI 바이러리의 죽음 고백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망상분열적 위치를 통과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따라서 AI를 통한 재현은 망자를 내적 지지 자원으로 상징화하고 통합하는 우울적 위치로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환상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그것을 깨뜨리는 이중적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 작품은 망자의 현존이 산 자의 애도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 망자의 부재를 상징적으로 통합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허웅애기본풀이>는 이승과 저승이 단절된 채 끝나는 결말을 통해 산 자가 망자를 끝내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는 환상적 재현이 아니라 단절을 통한 수용이야말로 우울적 위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조건임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 곁 연행이라는 의례적 맥락에서 이 서사가 다시 호출될 때, 단절을 극복하고 이승과 저승을 상징적으로 재연결하는 심리적 장이 마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오늘날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후세계의 재현은 상실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애도의 본질을 지연시키고 환상 속에 머무르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비해 <허웅애기본풀이>는 이승과 저승의 단절이라는 결말을 통해 망자를 물리적으로 떠나보내고, 내면에서 상징화하는 것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결국 우울적 위치를 통과하는 애도의 가능성은 망자의 반복적 재현이 아니라 상실을 인정하고 의미화하려는 산 자의 상징적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두 작품의 비교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용 감독, 영화 <원더랜드>, (주)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2024.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1~920쪽.
- 강권용,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85쪽.
- 강지영, 「함흥본 <바리데기>에 나타나는 딸들의 자리 잡기」, 『우리어문연구』 80, 우리어문학회, 2024, 385~412쪽.
- 고은영, 『이승과 저승의 경계 넘어서기』, 민속원, 2021, 1~343쪽.
- 권태효, 『최초의 죽음』, 지식의날개, 2022, 1~304쪽.
- 김현선, 「서사무가와 고소설의 서사구조 비교 -<허웅애기본풀이>와 <콩쥐팥쥐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교육논총』 4,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29~50쪽.
- 김현선, 류창선, 「제주도 <허궁애기본풀이>의 의미와 의의」, 『실천민속학연구』 24, 실천민속학회, 2014, 127~163쪽.
- 김희선, 「제주 「시왕맞이」에 담긴 죽음과 치유 -굿의 의례와 본풀이, 심층심리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48, 한국무속학회, 2024, 55~97쪽.
- 박시연, 「가족관계의 갈등과 단절에 기인한 여성의 물화(物化) 양상과 꽃 화소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 연구」, 『문학치료연구』 67, 한국문학치료학회, 2023, 189~226쪽.
- 베레나 카스트, 채기화 옮김, 『애도』, 궁리출판, 2015, 1~248쪽.
- 서영숙, 「<저승차사가 데리러 온 여자> 노래의 특징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91~120쪽.
- 서영숙, 「한·영 발라드에 나타난 ‘여성의 죽음’에 대한 인식비교」, 『고시가연구』 31, 한국고시가문학회, 2013, 219~246쪽.
- 송영애,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관계의 가능성 혹은 위험, 그리고 혼돈」, 『영화평론』 36, 한국영화평론가협회, 2024, 80~83쪽.
-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 한겨레출판사, 2014, 1~663쪽.
- 신동훈, 「품안의 자식과 내놓은 자식의 엇갈린 운명」, 민족문학연구소 엮음, 『한국 고전문학 작품론 6』, 휴머니스트, 2018, 1~632쪽.
- 유석, 「자살생존자의 유예된 애도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문학치료집단 경험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 1~209쪽.

- 유형동, 「<허웅애기본풀이>의 구조와 의미」, 『어문론집』 68, 중앙어문학회, 2016, 129~148쪽.
- 윤정귀, 「<허웅애기본풀이>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110쪽.
- 이소윤, 「<허웅애기본풀이>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60, 한국고전연구학회, 2023, 99~128쪽.
- 정순애, 「진도 씻김굿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76쪽.
- 정제호, 「<허웅애기본풀이>에 나타난 ‘선의의 악인’과 저승관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44, 한국구비문학학회, 2017, 97~122쪽.
- 카탈리나 브론스타인 외 10인, 홍준기 옮김, 『현대적 관점의 클라인 정신분석』, 눈출판그룹, 2019, 1~392쪽.
- 표유진, 「SF영화에 나타난 디지털 사후세계와 죽음의 윤리」, 『대중서사연구』 30(3), 대중서사학회, 2024, 469~494쪽.
- 한나 시걸, 이재훈 옮김,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1~206쪽.
- 홍희정,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에서 본 애도과정 사례연구」, 협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184쪽.
- 황혜진, 「메타버스의 시각에서 본 『금오신화』의 공간 구성」, 『작문연구』 53, 한국작문학회, 2022, 83~117쪽.

ABSTRACT

The Process and Meaning of Bereavement and Mourning in the
Kang Eul-saeng Version of Heoungaegibonpuri
- In Comparison with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in the Film Wonderland (2024)

Kim, Ji-hye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reavement and mourning process depicted in Heoungaegibonpuri(Kang Eul-saeng version) through the lens of Melanie Klein's concepts of the paranoid-schizoid and depressive positions. The narrative reveals a psychological structure of deferred and transgenerational mourning, as the daughter, who experienced the death of her biological mother in childhood, becomes a mother herself and faces loss once again without having psychologically integrated the initial trauma. The ending, in which the world of the living and the world of the dead are severed, evokes the necessity of letting the deceased go, but it falls short of guiding the living toward internalizing the dead as a source of psychological support.

In parallel, the film Wonderland, which deals with a similar experience of loss, highlights the potential danger of AI-mediated reunions in impeding the bereaved's confrontation with reality and keeping them trapped in illusion. Both works explore the influence of the deceased's continued "presence" on the mourning process and point to the consequences that arise when psychological integration of absence is not achieved.

However, Heoungaegibonpuri presents the ritual of gut as a means of reconnecting severed ties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completing an unfinished mourning process. The gut serves as a transformative space in which the deceased can be symbolically internalized, allowing the mourner to recover their vitality.

This traditional mechanism of grief carri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AI-centered approaches to mourning.

Key Words The Kang Eul-saeng Version of Heungaegibonpuri, the process of mourning, paranoid-schizoid position, depressive position, film Wonderland

논문투고일: 2025.07.20.

심사완료일: 2025.08.11.

게재확정일: 2025.08.13.

